

# 내가 갖고싶은 住宅

公 日 坤 / 공일곤건축연구소

유치원 시절이었던 것 같다. 내가 살던 옆집에 2층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고 웅장했었다. 나는 그집에 몇 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받은 그집에 대한 인상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지금까지도 생생히 간직되어 있다.

내가 건축과를 지망하게 된 동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계 제일가는

건축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 때문도 아니었다(물론 후에 그러한 욕망이 떠올랐다). 다만 내집을 내 마음에 꼭 들게 지어보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주택설계를 의뢰받고 진행하는 과정의 어느 기간동안은 내집같은 기분이 된다. 건축주에게 이러저러 해서 이 설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점을 그분의 힘을 빌려 연습해 보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던 집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집을 그려낼 수가 없다. 아니 그것보다는 모르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전에는 전혀 흥미도 없던 것들이 매우 좋아지는가 하면, 내가 왜 이런 것에 흥미를 느꼈던가 하고 후회하기 일쑤다.

다른 분과는 달리 나로서는 내가 원하는 주택이란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면이나 건축자체로서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리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되었는데(그렇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흐릿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

충분한 햇빛을 받도록 해야겠지만 이끼가 끼고 그늘진 장소도 필요하겠지. 최대한 면적을 아껴가며 기능적인 배치를 해야겠는데 꾸불꾸불 회랑같은 복도도 있어야만 어슬렁거릴 수 있지 않을까.

네모 반듯한 경제적인 구조로서 시야가 탁 트인 것이 좋긴 하나 중세의 고독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콕콕 막힌 폐쇄적인 공간도 좋으리라.

하루에 몇층씩 올려 지을 수 있는 현대건축 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야겠는데 수백 수천년 전의 돌이나 벽돌 등, 고리타분한 자재나 방법 또한 향수가 있고 연대감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지 않은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 이는 이율배반적인 감도 없지 않으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 혹은 요소가 갈수록 많아지니 난처한 일이다.

사실상 가정의 보금자리로서 주택이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주택이 세대나 세대 또는 그 무엇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해져야만 하는가?

